

공공기관장의 퇴직금 등 역대 '통큰 기부'

광주의 한 공공기관장의 훈훈한 퇴임이 잔잔한 미담이 되고 있다.

26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퇴임식을 치른 김동찬 전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합쳐 1억2000만 원을 "아픈 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돈은 김 대표가 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로 취임한 이후 1년6개월 간 모아온 월급 1억 1000만원과 퇴직금 1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김 전 대표가 기부한 돈 가운데 1억원은 사랑의 장기기증과 한국생명사랑재단 광주전남지부에, 나머지 2000만원은 청년 도약자금으로 각각 전달되고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찬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대표 '훈훈한 퇴임'



그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 간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임기만료를 6개월 앞두고 이날 퇴임했다.

김 전 대표는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탄생한 제1호 사회통합형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

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산파 중 한 명으로 역할했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와 착공, 청년 일자리아업 등에도 힘을 실었다.

김 전 대표는 "(기부는) 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될 때부터 품어왔던 생각"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나눔과 연대정신을 경제에 접목시켜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자동차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시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게 오랜 철학이자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해남진도축협, 목포무안신안축협과 상호기부 무안군은 해남진도축협과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지난 23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축협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남진도축협 임직원들이 무안군에 600만 원, 목포무안신안축협 임직원들이 해남군에 6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순천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 순천소방서가 여름철 본격 수난사고대응을 위해 26일부터 구례군 상동면 소재 구민체육공원 수변 소재 간척저수지 일대에서 여름철 수난사고를 대비해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전승일 의원, 의정대상 입법 우수상 수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



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 1·2동, 화정 1·2동, 양동, 양3동)이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은 전국243개 지자체에서 수상자 49명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은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을 실현하고 지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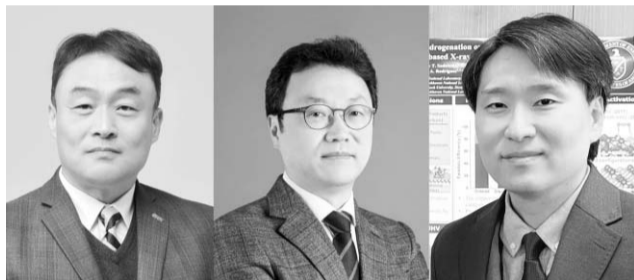
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전 의원은 "작년 지방자치학회의 수상, 올해는 행안부 적공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케어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펼쳐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탑승설비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여가 활동으로 가족간 화합과 소통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는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조선주 기자

GIST-KAIST, CO2 분자 효과적 분해 방법 제시

"온실가스 전환 효율 높이는 촉매 개발에 활용 기대"



왼쪽부터 문봉진 교수, 박정영 교수, 김정진 박사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는 물리·광과학과 문봉진 교수 연구팀이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박정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초미세 계단형 구리(Cu) 촉매 표면이 이산화탄소(CO2) 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입증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상압 전자터널링 현미경 기술을 활용해 머리카락 두께의 10만분의 1 크기의 계단형 표면 구조가 온실가스의 분해 반응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결과는 기존 촉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촉매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성과는 온실가스의 전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실가스 전환 기술은 최근 G7 국가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글로벌 스탠다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연 및 민관 협력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과 동시에 미래 청정 연료인 메탄올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분해 반응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산화탄소 분자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탓에 공업적으로 유용한 화학 물질로의 전환은 여전히 난제로 여겨진다. /권형안 기자

노화읍 '육탄10용사' 故박창근 상사 추모제 개최

강성운 부군수·유족회 김미순 부부 등 200여 명 참석



김남일 故 박창근 상사 추모제운영위원장, 유족회 김미순 부부(오른쪽)

완도군 노화읍은 26일 청년회장 주관 '제6회 육탄10용사 故 박창근 상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강성운 완도 부군수는 추사에서 "故 박창근상사가 조국을 지키

다 청춘을 불살라 버린 장렬한 전사에 가슴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참석한 유가족과 행사를 추진해 온 김영무 청년회장단에 감사의 드린다"고 말했다. /원도=이두식 기자

이날 행사에는 강성운 부군수, 이철 도의원, 박재선 군의원, 박성규 군의원, 김준혁 노화읍장, 문철민 완도소안조합장, 김중방 농협조합장, 김영락 변영회장, 김관근 이장단장, 노화중학교교장, 추교훈 복지과장, 특히 노화 중·고등학교생 및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유족회 김미순 부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육탄 10용사' 중 한 명에 속하는 박창근 상사는 1925년 완도에서 태어나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특공대에 자원한 박 상사는 이듬해 5월 송악산지구 5·4전투 당시 중화기소대 분대장으로 육탄공격을 감행, 적의 병기를 파괴하고 현장에서 전사했다. /원도=이두식 기자

순천대 공대학생회 하계 농촌봉사활동 실시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공감학생회는 재학생 83명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3년도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순천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일손이 부족한 순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희망 학생을 모집하여 순천시와 순천농협의 지원을 받아 2박 3일 동안 순천시 황전면 월등면 등 승주읍 일대에서 매실 농가 일손 돕기와 마을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민 공대 학생회장은 "공대 재학생들이 지역 농가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립 순천대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공감학생회는 지난 5월 순천만국제제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박람회장 단체 홍보사진 촬영 및 플로깅 행사도 추진한 바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교육청, 교육장기 초·중 수영대회 성료

관내 초·중 33교 340명 출전...작년 대비 134명 증가



순천교육지원청이 지난 25일 순천 신대유·정소년 수영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27교 312명, 중학교 6교 28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24회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은 교육장기 초·중 수영대회는 지역 수영 종목의 저변 확대와 수영 꿈나무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참가 학생은 340명으로 작년 204명 대비 134명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날 경기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종목별 50m, 100m 경기로 진행되고, 예선 없이 타임레이스로 운영됐다.

대회 결과, 초등학교부에서는 신대초등학교, 중학교부에서는 남산중학교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임종윤 교육장은 대회사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선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대회가 아닌, 서로가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배우고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주서부교육, 중학교 교감단 연수·협의회

'3부장교사기피 현상 해결' 위한 조직문화 관련 토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3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서부 관내 58개 중학교 교감 대상으로 '2023 서부 중학교 교감 연수·협의회'를 개최했다.

2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협의회는 서부 관내 중학교 58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수렴해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학기별로 운영된다. 이번 1학기 협의회는 ▲주요 업무 안내 ▲주제가 있는 분임 토의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 진로 프로그램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 안내' 프로그램은 교원 인사 업무 연강 일정 및 복무 중 연가 사용이라는 주제로 민원이 될 만한 사례를 강조해 이뤄졌다. /김도기 기자

광양시립합창단 'Joy&Love' 개최

내달 6일...기쁨과 사랑 가득한 희망의 노래 선배

광양시립합창단은 오는 7월 6일 오후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Joy&Love'를 주제로 제23회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류한필 객원 지휘자의 첫 공연으로 총 4부로 구성됐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합창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구성은 ▲1부 대관식 찬가 ▲2부 한국창작 가곡과 민요 ▲3부 미국영가 ▲4부 Musical Riskotto(J. Willcocks) 등 즐거운 합창곡으로 준비됐다.

1부에서는 시립합창단과 함께 챔버 플레이어스 21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특별출연으로 테너 류정필이 함께해 풍성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너 류정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해 이탈리아 벨리니 국제공



쿠르, 스페인 프란체스카 쿠아르트 국제콩쿠르 등 다수 입상했다. 공연은 별도 예매 없이 현장 자유석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합창단(061/797-3127) 또는 문화예술회(061/797-271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조순의 기자